

10-27-2024 주일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창세기 5:22-24

말씀 제목: 자신이 택한 자들을 환란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 역사 6000 년에 걸쳐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죽음을 잠시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고”**(히 9:27)라는 말씀에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히 11:5)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는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라는 그것은 바로 대홍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하여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앞으로 세상에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환란 전에 그를 하늘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며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가족 8 명 외에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홍수 위로 떠올라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대별로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비의 지식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쁨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9-10)

하나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롯이 의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뜻을 견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 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벧후 2:6-9)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환란 전에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살전 5:4-10)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되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살후 2:3)

사도 요한은 휴거의 날에 있게 되는 일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미리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또 그 어린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계 4:1-3; 6:1-2)

하나님께서 휴거된 성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이십사 장로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더라.”(계 5:9-10)

그렇습니다.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 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음이라.”(시 22:27-31)
아멘! 할렐루야!